



강원도

느티나무

흰빛 호랑이의 전설을 가진 느티나무

	강원-화천-3	강원 화천군 화천읍
지정번호	2005	호음로 806
지정년도	화천	38° 07' 33.15" N
관리기관	410년	127° 47' 26.48" E
수령	23m	
수고	4.6m(한 줄기)	
흉고둘레		

예전에 초등학생들의 놀이터였으며 지역 역사를 간직한 보호수(강원-화천-3호) 느티나무는 굽이굽이의 고개 하나를 넘어야 나타나는 산골 마을에 자란다. 이 느티나무가 서 있는 곳은 폐교한 동춘초등학교 교정이며, 현재는 경로당 등이 들어서 있다. 느티나무의 나무나이는 41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23m, 가슴높이둘레는 한쪽이 460cm, 다른 쪽이 4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다. 이 느티나무는 밑둥이 특이하다. 커다란 줄기는 1m 거리를 두고 2갈래로 완전히 갈라졌고, 갈라진 한 줄기는 바로 옆에 또 다른 작은 줄기가 땅을 박아 한 몸이 되어 있다. 얼핏 보면 2그루 또는 3그루의 나무처럼 보인다. 원줄기는 밑둥에서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으며, 높이 7m 정도에서 가지가 갈라져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100년 전부터 전승하는 이야기는 호랑이와 관련한다. 마을의 어느 어르신은 꿈에 흰빛을 띠는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호랑이는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어르신은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아들을 서낭당으로 내려보내 기도하고 상황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서낭당에 도착한 아들은 커다란 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아들은 급하게 물을 퍼 날라 불을 꺾다. 다행하게도 나무 일부만 불에 타서 죽고 대부분의 줄기가 살아남았다. 그 후 나무는 커다랗게 잘 자라났다. 이 나무가 바로 이곳의 느티나무이다.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를 자신의 위기를 꿈을 통하여 알렸던 신기한 나무로 여기고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느티나무는 마을의 당산목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함께하고 있다. 매년 10월 9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이 느티나무 밑에서 지내고 있다. 마을에서는 꿈에 나타난 백호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호랑이 축제를 펼쳐 호랑이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마을의 길과 산야도 호랑이 흔적이 남아 있는 이름이 있다.